

중국출장 결과보고(중국 절강성 호주시)

보고자: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

I. 출장 개요

1. 방문 목적

- 본원의 수탁과제인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금산인삼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 제4회 동아시아농업문화유산협의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그 동안 준비해 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내용을 중국, 일본 등 전문가들에게 설명 및 이해 제고
- 한중일 각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농업유산 등재 준비, 관리체계, 정책 지원 현황 파악

2. 방문 기간, 방문지, 방문단 구성

- 방문기간: 2017년 7월 11일(화)~14일(금)(3박4일)
- 방문지: 중국 절강성 호주시(湖州市) 적향어장(荻港漁庄)
- 한국방문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학교수,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연구자 등 총 32명

3. 주요 일정

월/일	시 간	내 용	
7월 11일 (화)	14:40□15:25 15:00□18:00	이동: 인천 □ 중국 상해푸동공항(대한항공 KE897) 이동: 상해푸동공항 □ 호주(Huzhou)	호주시 숙박
7월 12일 (수)	08:30□18:00	제4회 동아시아농업문화유산협의회 국제컨퍼런스 참석 - 금산인삼농업의 농업유산적 가치 발표	호주시 숙박
7월 13일 (목)	10:00□12:00 14:00□16:00 16:00□18:00	Min Qingwen 교수(중국) 면담 및 자문 다케우찌 가즈코 교수(일본) 중국, 일본 농업유산 담당공무원, 전문가 면담	호주시 숙박
7월 14일 (금)	08:00□12:00 13:00□15:00 16:35□19:45	중국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 현지 견학 이동: 호주 □ 상해푸동공항 상해푸동공항 □ 인천공항 도착(대한항공 KE894)	귀국

II. 주요 활동 내용

1. 제4회 동아시아농업문화유산협의회 국제컨퍼런스(7월 12일)

○ 주요 참석자

- 閔慶文 교수(FAO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 과학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동아시아 농업문화유산연구회 집행위원장), 盧躍東 후저우시 부시장, 다케우치 교수(FAO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윤원근 교수(한국농어촌유산학회 전 회장), Mauro Agnoletti 교수(FAO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FAO) 각계 전문가 약 300명

- 한국대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박경희 과장, 협성대 윤원근 교수, 금산군 강희천 팀장 등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 교수, 연구원 32명

○ 주요 발표 내용

- 이번 컨퍼런스는 개회사와 치사, 기조연설, 4개 분과로 구성되어 발표함
- 개회사는 閔慶文 교수, 盧躍東 후저우시 부시장, 馬文森 대표(FAO 중국, 한국, 몽고 주재 대표처 대표), 熊哲 선생(FAO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 비서실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동아시아농업문화유산협의회 국제컨퍼런스의 경위와 중요성, 그리고 농업문화유산의 발굴과 등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함.
- 기조연설은 중국의 駱世明 교수가 “동아시아농업발전의 역사와 유럽과의 차이 및 영향”을, 일본의 다케우치 교수가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탈리아의 Mauro 교수가 “이탈리아 농업정책에서의 경관”을 발표함.
- 마우로 교수는 농업문화유산에서 경관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함. 현재 그가 FAO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장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농업유산에서의 경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세부 발표 내용

- 세부 발표는 크게 포스터발표와 세션발표로 이뤄짐.
- 포스터발표는 금산인삼농업시스템 등 모두 17개가 발표됨
- 세션 발표는 제1세션 “품질인증, 표지사용, 브랜드 개발로 농업유산지의 경제발전 촉진”이라는 주제로 모두 6개 주제 발표가 있었고, 제2세션은 “농업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서비스보호의 인센티브 체계”라는 주제로 모두 7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음.
- 오후에 이뤄진 제3세션은 “농업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과 관리”라는 주제로 7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전통농업문화보호와 전승의 혁신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모두 7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음.

○ 대회 보고와 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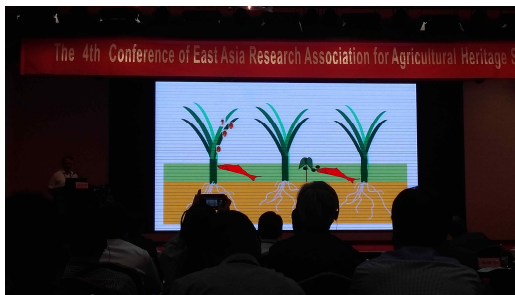
-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세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대회 보고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의 중앙정부 농어업유산 담당자가 직접 각국의 농어업 유산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함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박경희 과장이 한국의 농어업유산 현황과 관리 방안을 발표함. 발표 과정에서 금산인삼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특히 강조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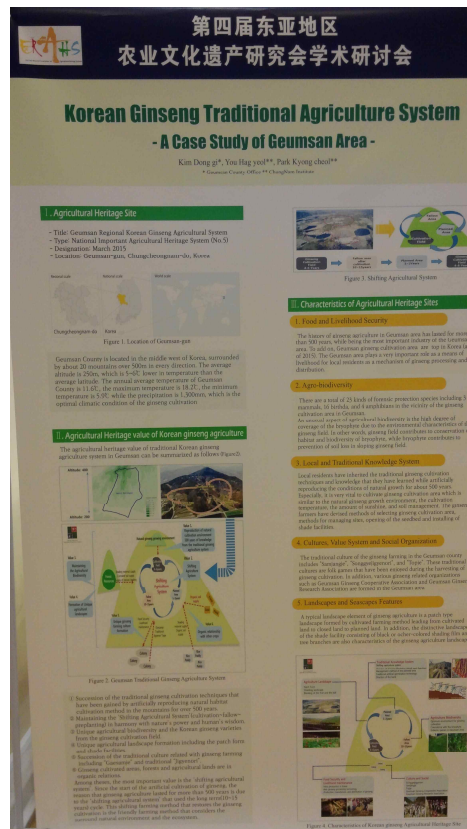


3

[그림 1] 기념사와 주제 발표



[그림 2] 제4회 동아시아농업문화유산연구회 심포지엄 기념사진



3

[그림 3] 금산인삼농업시스템 발표 포스터

2. 농업유산 현장 견학(7월 13일)

1) 호주뽕나무양어장시스템(湖州桑基魚塘系統)

- 호주뽕나무양어장시스템의 기원은 2500년 전인 고대 춘추전국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함.
- 태호(太湖)라는 거대한 호수 아래에 위치한 이 지역은 호수주변을 적당한 크기로 나눠 축을 쌓고 배수시설을 마련해 양어장을 만들.
- 축대는 주로 흙으로 쌓았기 때문에 이곳에는 뽕나무를 심어 뽕나무에서 나오는 각종 유기물로 물고기를 키우고 둠벙에서 나오는 유기물이 풍부한 진흙은 뽕나무의 거름으로 뿌려 뽕나무와 물고기 간 순환시스템을 만들.
-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뽕잎으로 누에를 길러 중국 최고의 실크 생산지가 됨.
- 현재 이곳 농업유산보호구에는 4000km²의 뽕밭과 10000km²의 양어장이

- 있음. 중국 전통 뽕밭양어장으로서는 가장 크고 가장 잘 보호된 지역임.
- 호주뽕나무양어장시스템은 2014년 6월 14일 중국중요농업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현재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준비하고 있음.



[그림 4] 중국중요농업문화유산인 호주뽕나무양어장시스템

2) 호주뽕나무양어장시스템역사문화관(湖州桑基鱼塘系统历史文化馆)

- 호주뽕나무양어장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2016년에 건립함.
- 전체 1500㎡의 면적에 호주뽕나무양어장시스템의 기원, 발전, 도법자원, 천지합일 등 중화농경문화의 이념 등에 관한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음
- 뽕나무양어장시스템 뿐만 아니라 누에와 실크에 관한 내용도 자세하게 전시하고 있고 촌민들이 직접 가공하는 활동 모습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듦.
- 이 역사문화관은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의 촌장이 설립한 荻港漁庄이라는 마을기업에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함.



2



3

[그림 5] 호주뽕나무양어장시스템 역사박물관

3) 적향고촌락(荻港古村落)

- 호주뽕나무양어장시스템이 있는 적향고촌락은 경향(북경과 항주)운하를 끼고 있고 전통문화와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임.
- 운하를 끼고 있어 이전에는 상업이 매우 발전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전통과 문화가 전승되는 고촌으로 변함.
- 마을내에는 마을기념관, 공자상, 공연장, 호수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음.





3

[그림 6] 경향운하 변의 적항고촌락(荻港古村落)

4) 남심고진(南潯古鎮)

- 남심고진은 후저우시 남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 고진(古鎮: 옛도시)에 등재된 지역이며 후저우시의 첫 번째 5A관광지임.
- 예로부터 이 지역은 '문화의 나라, '시서(詩書)의 고향'으로 불렸는데 특히 송대에 문화를 꽃 피웠음.
- 여기에는 청말 민국초기 부호였던 장씨가와 류씨의 저택이 남아있는데 그 규모와 사치스러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
- 이들은 모두 중국 혁명시기 공산당의 집권이 확실시 되자 대만과 미국으로 도피함. 현재 국외에 있는 후손들이 이곳과 교류하며 장학사업도 하고 있다고 함.





[그림 7] 청말민국초 중국 부호의 모습이 남아있는 남심고진(南潯古鎮)

Ⅲ. 전체 평가 및 과제

1. 이번 제4차 동아시아농업문화유산협의회 국제컨퍼런스에는 한국, 중국, 일본 관계자뿐만 아니라 FAO 농업문화유산위원회 과학자문위원장인 Mauro 교수 등 300여 명이 참가해 FAO의 농업문화유산 등재 현황과 향후 계획, 각국의 농업문화유산의 발굴과 관리 방안 등에 관해 많은 발표와 토론이 이뤄짐.
2. 이번 국제컨퍼런스의 주최측인 중국은 이번 행사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우린 것으로 보임. 중국중요농업문화유산인 호주뽕나무양어장시스템이 있는 적향어장을 국제컨퍼런스 장소로 선정한 것부터 심포지엄 전에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뽕나무와 양어장에 관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노력을 기우렸고 여러 세미나와 만찬행사, 현장견학과 지역문화 탐방 등 모든 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기우림.
3. 이번 출장의 목적인 금산인삼농업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함.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박경희 과장,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윤원근 교수, 한국농어촌공사 박운호 박사 등이 FAO, 중국, 일본 관계자에게 금산인삼의 세계농업유산 등재 재신청의 과정에 설명했고 각국 대표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함.

4.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FAO 농업문화유산위원회 과학자
문위원장인 이탈리아 Mauro 교수는 경관 전공이기 때문에 인삼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어 향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임. 따라서 Mauro 교수의 금산인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농림
축산식품부, 금산군, 충남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협력해 좋은 방
안을 찾는 게 앞으로 금산인삼농업시스템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관
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5. 내년 제5회 동아시아농업문화유산연구회 심포지엄은 일본 와카야마
로 정해짐.